

또 터진 코로나...속 터지는 골목상권

광주 재확산에 영세자영업 경영난...6월 폐업신고 전년비 32% ↑ 동행세일 무색...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감소율 3.7%P 상승

“가게 문을 다시 열 자신이 없어요. 이제 는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의 한 음식점 사장 김모(63)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확산 하면서 매출이 떨어지자 여쩍 수 없이 휴 업을 택했다.
 이후 점차 진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가게 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 광주에 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심각하게 폐업 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동안 가게를 쉬면서 단골을 비 롯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버린 탓에 문을 열어도 손님이 다시 찾아올지 확실할 수도 없다”며 “이런 상태라면 가게를 열어도 오 히려 손해볼 것이 뻔해 차라리 폐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안 진정세를 보여왔던 코로나19가 최근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시 재확산

하면서 지역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른바 ‘골목상권’이 극심한 위기에 내몰 리고 있다.
 인건비라든가 아껴보려 부득이 휴업에 들 어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버티다 못해 결국 생업인 가게 문을 닫고 폐업을 택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고용유 지 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292개 업체 4986명 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정부의 긴급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뒤 아직 광주시의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지난달 기준 378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최소 670곳이 휴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조 금이라도 지출을 줄여보기 위해 휴업을 택

한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문제는 휴업을 하다 영업을 다시 시작하 려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진정될 기미가 보 이지 않으면서 결국 폐업하는 영세자영업 자·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시의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현 황을 보면 지난 4월 102건이던 폐업신고 건수는 5월에 접어들면서 150곳으로 급증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6곳)에 비 해서도 19.05%가 증가한 것이다.
 6월에 접어들면서는 전년(106곳)보다 무려 32.08%가 늘어났다. 140곳이 추가로 폐 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광주에서 또 다시 확 산한 시점과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의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중소기업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율은 지난 주보 다 3.7%포인트 하락해 매출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실 시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

행세일’ 효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광 주·전남은 ‘동행세일’ 취지가 무색하게도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 감소율이 오히 러 3.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외식업계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영세한 음식점, 즉 골목상권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 더 취약한 탓 에 앞으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 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3개월 휴업을 하게 되도 한번 끊긴 손 님의 발길이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경기가 위축되면 외식 횡 수가 줄고, 한번 외식을 할 경우 작은 식당 보다 비싼 음식을 파는 규모가 큰 식당을 찾는 소비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컨설턴트전문그룹 이시스엔터프라이즈박 진석 이사는 “기업형·대규모 음식점 등 상 위 20%에 소비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 며 “영세한 가게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이들의 폐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 다”고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58.88 (-5.29)	↓ 금리(국고채 3년)	0.839 (-0.004)
↑ 코스닥	765.98 (+6.80)	↓ 환율(USD)	1195.50 (-0.20)

채소값 ‘쑥’

장마철에 생산량 감소...배추·상추 등 20~30%대 올라

광주지역 상추, 오이 등이 장마철에 들어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 전남지역본부는 광주 양동시장 주요 농 축산물 가격정보를 담은 소식지 ‘얼마 요’ 2011호를 8일 발행했다.
 지난 6일 기준 상추 100g 가격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르고 2주 전보 다 50% 오른 900원으로 조사됐다.
 오이 10개 가격은 8000원으로, 1년 전(7750원) 보다 3.2% 오르고 2주 전 보다 14.3% 상승했다.
 aT는 상추, 오이 등 일부 채소류는 장 마철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생육부진으 로 가격 오름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의 대부분 채소류는 출하교체가 공 급 불안정에도 소비문화로 보험세를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주요 채소는 배추(3.5kg 4000원·25% ↑), 양파(1kg 2000원·33.3% ↑), 대파(1kg 2500원· 19.1% ↑) 등이 있다.
 건고추(-26.7%), 풋고추(-4%), 깎 마늘(-14.3%) 등은 가격이 내렸다.
 과일류는 자두, 복숭아 등 다양한 햇과 일 출하로 소비가 분산된 가운데 배 (10개) 가격은 지난해(5만4500원)보다 35.8% 내린 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수박(10kg)은 여름철 수요증가와 우 천으로 인한 출하작업 부진 등으로 오름 세를 형성하며 지난해보다 12.7% 오른 2만원으로 조사됐다.
 사과 10개 가격은 전년 2만5000원 보 다 32% 오른 3만3000원이었다.
 본격적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한우등 심 1등급 100g 가격은 8160원으로, 전 년보다 16.6% 올랐다.
 삼겹살(100g) 가격도 1년 전보다 14.3% 오른 2160원으로 조사됐다.
 aT 관계자는 “앞으로 2주 동안 장마 영향으로 산지 출하가 원활하지 못할 것 으로 보여 상추, 깎잎 등 채소류 대부분 품목이 오름세를 보이겠다”며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등급이 중저급에 따라 급 식수수 감소로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bhj@

광주은행 “코로나 함께 극복합시다” 전남도에 성금·장학금 2억원



광주은행이 8일 전남도청에서 코로나 긴급구호 성금 1억원과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1억원 등 총 2억원을 전남도에 전달했다. 광주은행이 전남도에 전한 코로나19 극복 성금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오른쪽 네 번째부터 송종욱 행장, 김영록 지사, 박홍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광주은행 제공)

전기차에 충전기 꽂으면 자동 결제

한전 ‘플러그 앤드 차지 충전 기술’ 개발...내년부터 적용

전기차에 충전 플러그를 꽂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기술이 내년부터 적용 된다.
 한국전력은 전기차에 충전 플러그를 꽂 으면 사용자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 지는 ‘플러그 앤드 차지(Plug and

Charge) 충전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 혔다. 전기차를 충전기와 연결하면 전기차 에 저장된 차량 정보와 결제 정보를 이용 해 별도 사용자 확인과 결제단계 없이 간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내년부터 이 방식이

적용된 전기차 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에 맞춰 공용 급속충전기에 이 기능을 우선 적용한다. 한전은 이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보안 통신 인프라 ‘PKI’를 민 간 충전사업자나 전기차 제조사에도 제공 할 계획이다. PKI는 충전기와 전기차 등에 전자인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이 2023년까지 자동차 시장의 7%까지 늘어 연간 54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면서 “한전이 제공하는 보안 통신 인프라를

다양한 사업자가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스마트 충전, 양방향 충전(V2G)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앞으로 무선충전과 ‘플러그 앤드 차지’ 기술을 결합해 전기차를 주차하면 별도 조작 없이 충전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보 안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충전하는 동안 차량을 자동 점검해주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상조업체 636만명 가입...맡긴 돈은 6조원

호남권, 6개월 전보다 8200명 늘어 10만명

광주·전남·전북지역 상조업체 가입자 가 10만명을 바라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조업체) 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기 준 광주·전라지역 상조업체 가입자는 9 만9800명으로,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9만1600명)에 비해 8200명(9%) 증가 했다.
 지역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전체 636 만명의 1.6%를 차지했다. 6개월 전 비 중(1.5%) 보다 소폭 올랐다.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와 같은 5개로 집계됐다. 전국에는 81개 상조업체가 있 으며 수도권(45개), 영남권(23개), 대 전·충청(6개), 광주·전라(5개), 강원· 제주(2개) 순으로 많다.
 전국 상조업체에 맡긴 선수금은 3월

기준 5조9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989억원(5.35%)이 증가 했다.
 이 중 5조7994억원(98.6%)은 선수 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가 보유 중이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사상 처음 으로 600만명을 돌파해 601만명을 기록 한 뒤 올해 상반기 35만명(5.8%)이 더 늘어난 636만명으로 집계됐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 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내상 조 찾아줘’ 누리집(mysangjo.or.kr) 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 태 및 선수금 보전 현황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여행 관광, 새로운 키워드를 찾아라

특집

뉴노멀 시대, 슬기로운 여름휴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야간관광 시도라, 삼림욕 만끽 남도 관광

문화 화제

서양화가 한희원 시화집 '이방인의 소묘' 출간, 전시

클릭, 문화현장 9-통영 윤이상 기념공원

"여기 윤이상선생이 살고 있다"

화제의 문화현장 청년들의 공간, 광주시민회관 FoRest971

예행이 만난 이 사람 '200경기 출장' 기록 광주FC 주장 여름

예향 초대석

'63년 외길'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영원한 광대인생을 살립니다"

우리 땅, 우리 문화 ① 보물 '미암일기'의 집 담양 모현관

머물고 싶은 전남 행복술 ④ 7월의 명품술 진도 관매도 해송술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경관의 완성-에필로그

매력적인 도시디자인의 대전제는 '사람중심'

전시 리뷰 김영화 <인생여행길>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③ 대중문화와 연예인의 서울 초집중화 문제없나?

문화 트렌드 지금은 '굿즈 전성시대' 팬덤 있는곳에 굿즈 있다

문화 특특 디자인 광주 색깔은 아트숍, 문화상품들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⑧ 뮤지엄은 박물관인가, 미술관인가?

싸목싸목 남도 한 바퀴-영광 보물 가득한 옥대고을

-정통길과 서해바다 -애물망고, 모깃잎 송편